

2022학년도 6·9월 모의평가 윤리와 사상 분석 칼럼 안내

이상(理想) 도덕·윤리 연구소
소장 임재섭

수능에서 윤리를 응시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 도덕·윤리 연구소의 소장 임재섭입니다. 어느덧 수능이 한 달 남짓 남은 시점이 되었습니다. 사회탐구 영역의 응시생분들께서는 아마 대개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를 거치면서 국어, 수학, 영어 영역에 대한 역량을 한껏 끌어올리셨을 것이고, 수능이 가까워진 지금쯤 개념 위주의 탐구 과목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언젠가부터 특히 생활과 윤리에서 많이 보이는 일명 ‘분석 칼럼’들을 보면서, 글과 사고로 승부를 보아야 하는 윤리 과목에서는 수험생들에게 꽤 많은 도움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그런 분석 칼럼을 쓰거나 분석서를 출간하는 일을 해서 수험생분들께 도움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저나 다른 연구원들이나 대학생으로서 바쁘기도 했고, 연구소의 본업과 Éthique Fatale 모의고사 출판으로 인해 여유가 없는 탓에 칼럼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연구소의 일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고, 마침 이 시점이 사회탐구를 공부하는 적기라고 생각이 들어 저도 칼럼 작업에 착수하려고 합니다. 과목은 **윤리와 사상** 하나입니다. 두 과목을 모두 제대로 수능 전까지 다룰 자신이 없다는 이유에, 생운에서는 커뮤니티 칼럼 및 출판된 분석서가 이미 많이 있다는 이유가 더해져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소수 과목일수록 학습 콘텐츠는 부족한 고로, 다수 과목인 생운보다 비교적 소수 과목인 윤사에서 칼럼의 ‘수요자’는 적을지언정 ‘수요’가 적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칼럼의 분석 대상은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그리고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입니다. 전 문항을 다 보는 것은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에 분석 가치가 있는 것들을 선별해서 다룰 생각입니다. 여기서 분석 가치라는 것은 문제가 얼마나 어려웠느냐 하는 소위 ‘킬러’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수능에서 직간접적으로 물어질 수 있는 요소들, 선지로 등장할 가능성과는 별개로 사상가의 사상 체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 등 수능 고득점·만점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문제를 해부할 것입니다.

업로드 날짜와 시각을 정해 두고 일정하게 지키기는 어려워서, 평일 중에 틈틈이 올라온다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윤사 만점을 향해 달려 볼까요? 바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이상 도덕·윤리 연구소 소개

이상 도덕·윤리 연구소는 최근 수능에 대한 감각과 교과 지식이 충분한 대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철학·윤리 전공자와 타과 전공자를 아우르고 있어 균형 잡힌 시각에서 모의고사를 제작한다. 수험생분들의 수능 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류 없는 문제, 쉽지 않은 문제, 깔끔한 문제를 지향한다.

이상 도덕·윤리 연구소 연구원

- 임재섭 서울대학교 철학과
- 강승철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 김성민 서울대학교 인문계열
- 박세은 서울대학교 철학과
- 박정민 건국대학교 철학과
- 여지선 동국대학교 철학과
- 임재원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 조민준 서울대학교 철학과

이상 도덕·윤리 연구소 약력

- 2021년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Éthique Fatale 모의고사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출간